

A205

비슬산에서 채집한 미지의 개별꽃의 실체는?

최 경, 박 재홍

경북대학교 자연대학 생물학과

큰개별꽃, 개별꽃은 석죽과 개별꽃속내에서 상부잎이 위윤생하는 group에 속하는 종들이다. 4~5월에 개화하며, 큰개별꽃이 개별꽃보다 시기적으로 2주정도 빠른 개화를 보여준다. 대구시 비슬산에서 큰개별꽃 ($2n=32$), 개별꽃 ($2n=32$), 그리고 미지의 개별꽃이 인접한 곳에 자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. 화판의 크기, 화판 선단부위의 형태, 화경의 길이 및 털의 유무, 털의 배열상태, 뿌리의 크기 등을 비교한 결과, 이 두 종류를 제외한 새로운 종류의 개별꽃은 이들의 중간 형질을 띄었다. Allozyme 실험에서, 6PGD의 한 유전자좌위에서 개별꽃과 큰개별꽃의 대립유전자가 다르게 나타났다. 이 미지의 개별꽃은 이 두 종류의 개별꽃이 갖고 있는 band를 모두 나타내는 hetero의 상태를 나타내었다.

위의 결과들은 새로운 종류의 개별꽃이 큰개별꽃과 개별꽃의 교잡에 의해 나온 잡종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.

A206

Phylogeny of *Dystaenia*(Apiaceae) based on ITS sequences

Choi*, Hong-Keun, Hyunchur Shin¹, and Youngdong Kim²
Ajou University, Shunchunhyang University¹,
and Hallim University²

Dystaenia which was established by Kitagawa(1937) has two species of *D. takesimana*(Nakai) Kitagawa from Korea and *D. ibukiensis*(Yabe) Kitagawa from Japan. Nakai(1918) originally put *D. takesimana*(Nakai) Kitagawa into *Angelica*(= *A. takesimana* Nakai). On the other hand *D. ibukiensis*(Yabe) Kitagawa came from *Ligusticum*(= *L. ibukiense* Yabe, 1902). Hiroe(1979) agreed with Yabe since he did not accept *Dystaenia* as one of genera in Apiaceae. For the analysis of the phylogeny of *Dystaenia* among the tribe Apieae, we have sequenced ITS of rDNA from *D. takesimana* and *D. ibukiensis*. On the basis of ITS nucleotide sequences both species represent a distinct lineage in the parsimonious phylogenetic tree. *D. takesimana* and *D. ibukiensis* are grouped together as the same clade although they have quite different sequences. And the lineage of *Dystaenia* which is grouped together with *Endressia*, *Seseli*, and *Lomantium* as the sister group show the divergence clearly between *Dystaenia* and *Angelica*.